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미사 안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평일	06:30 (새 벽) 19:00 (저 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 알 림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다음주(4월 25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사순실천표를 내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4/18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04/25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식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성물방 판매 시간 및 신간 안내

- 판매시간 : 주일 10:00~13:00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빈첸시오 후원금 모집 *

코로나19로 정기적인 판매를 통한 후원금 모집이 안되어, 본당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초등학교, 중등학교 봉사자 모집
(한국어/중등수학 선생님)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든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04/25)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3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4월07일 ~ 04월13일)

교 무 금	5,987,000원
주일헌금	3,599,100원
감사헌금	유OO 10만원 조은미50만원 정정숙10만원 전을경 5만원 김영주20만원 익 명50만원 최은미10만원 이형순 5만원 정애자10만원 강계화30만원 김영균 5만원 이수희10만원 김옥순 2만원 신종구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4/18	이영민	오성환	도현만	최웅조	정재경
04/25	권태희	심재순	최상림	장익근	백희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9:00
04/18	박형순	이운영	오광운	이성일	최승일	최상남
04/25	오광운	장인홍	이운영	박형순	최창열	최석준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역사 의식의 종말

13. 이와 같은 이유로 역사 의식이 점차 희박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의 자유가 무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해체주의’가 현대 문화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그저 무한 소비의 욕구와 여러 형태의 공허한 개인주의의 강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언제인가 젊은이들에게 이처럼 조연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무시하고 선조들의 경험을 거부하며 과거를 경시하고 자신이 가리키는 미래만 바라보라고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젊은이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자기 말대로만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젊은이들을 피상적이고 근본 없고 회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그의 약속만 신뢰하고 그의 계획에만 따르게 합니다. 여러 이념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모든 다름을 (해체시키거나) 없애 버려 반대 세력 없이 군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념들은, 역사를 경시하고 세대를 넘어 전수된 영적 인간적 풍요로움을 거부하며 이전 세대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젊은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14. 이는 문화 식민지화의 새로운 형태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맙시다. “고유한 전통을 저버리고, 모방의 열광, 선동된 폭력, 용서할 수 없는 무심함이나 무관심으로 자기네 민족혼을 빼앗겨 버려도 용인하는 민족들은 그 정신적 특징과 윤리적 일관성은 물론, 마침내 사상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성마저도 상실합니다.” 역사의식, 비판적 사고, 정의를 위한 투쟁, 통합의 길을 약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를 공허하게 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자유, 정의, 일치와 같은 단어들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들은 조작되고 변형되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공허한 표제어처럼 지배의 도구로 악용됩니다.

모든 이를 위한 계획의 부족

15. 사람들을 지배하고 무한히 승승장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가치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절망의 씨를 뿌리고 끊임없는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과장과 극단화와 양극화의 정치 메커니즘이 이용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존재와 생각할 권리를 부인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을 조롱하고 의심하며 가차 없이 비난하는 전략을 씁니다. 다른 이들의 진리와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로써 사회는 빈곤해지고 강자들의 횡포에 예속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는 더 이상 모든 이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한 장기 계획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파괴하면서 자원의 효율을 이끌어 내려는 덧없는 마케팅 방법이 될 뿐입니다. 이기려고 다투는 이 저열한 싸움에서 토론은 논쟁과 대립의 상황을 유지하는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16. 우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밀어 넣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승리란 파괴의 동의어가 됩니다. 그러한 다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 들어 이웃을 알아 보거나 길에 쓰러진 사람 곁에 있어 줄 수 있습니까? 인류 전체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세운 계획은 오늘날 환상처럼 들립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더욱 공정하고 하나 되는 세상을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은 다시 한번 비극적인 퇴보를 겪고 있습니다.

17. 우리를 둘러싸고 지탱해 주는 세상을 돌보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의 집에 거주하는 하나인 ‘우리’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이윤을 요구하는 경제 권력은 이러한 돌봄과 무관합니다.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침묵 당하거나 조롱당하는가 하면, 흔히 특정 이해관계들만 그럴싸하게 포장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공허하고 즉각적이며 공동계획이 빈약한 이러한 문화 안에서 “어떤 자원이 고갈된다면, 고귀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여도 결국 새로운 전쟁의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